

- 주요 뉴스: 미국 생산자물가 및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완화 시사. 금리인상 중단 기대 증가
 - ECB 관계자, 5월 통화정책회의 0.25%p 인상 의견이 많은 편
 - 영란은행 총재, 금융안정 문제가 정책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중국 3월 수출, 양호한 대외 수요 등으로 예상치 상회. 향후 전망은 불확실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중단 시기 근접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3%], 달러화 약세[-0.5%],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지속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전망 약화 등으로 2개월래 최저
 유로화 및 엔화 가치는 각각 0.5%,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전망 불구 최근 상승 폭이 크다는 평가 등으로 보합 마감
- ※ 원/달러 1M NDF환율(1299.9원, -10.5원) 0.6% 하락, 한국 CDS 보합

		4/13일	4/12일	전일대비			4/13일	4/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46.2	4,092.0	1.33%	국채 금리 10y	미국	3.44%	3.39%	5bp
	유럽	464.21	462.38	0.40%		독일	2.37%	2.37%	0bp
	중국	3,318.4	3,327.2	-0.27%		영국	3.58%	3.57%	1bp
	일본	28,157	28,083	0.26%		CDS 5y	한국	45bp	45bp
	한국	2,561.7	2,550.6	0.43%	위험 지표	중국	68bp	69bp	-1bp
	달러지수	101.02	101.50	-0.48%		EMBI+	-	416	-
환율	유로화	1.1046	1.0992	0.49%		VIX	17.80	19.09	-6.76%
	엔화	132.58	133.13	0.41%		WTI유	82.16	83.26	-1.32%
	위안화	6.8676	6.8730	0.08%	원자재	구리	412.4	408.1	1.05%
	원화	1,310.4	1,325.7	1.17%		금	2,040.2	2,014.9	1.2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생산자물가 및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완화 시사. 금리인상 중단 기대 증가

- 3월 생산자물가(PPI)는 전월비 0.5% 하락하여 2월(0.0%) 대비 낮은 수준.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도 상승세 둔화(4.9%→2.7%). 근원 PPI 상승률 또한 전년동월비 및 전월비 기준으로 모두 상승세 약화(4.8%→3.4%, 0.2%→-0.1%)
- 이번 결과는 제품 가격의 하락(-1.0%) 등에 기인. 항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큰 폭 하락(-6.4%)했지만, 식품 가격은 상승(0.6%). 한편 서비스 가격의 경우 전월비 하락(-0.3%).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재차 확대. 다만 일부에서는 OPEC+ 감산에 따른 향후 유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
- 한편 4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3.9만건으로 전주(22.8만건) 대비 증가. 일부에서는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결과가 노동시장 약화의 기준(27만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 노동시장은 2/4분기까지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요 등으로 점진적으로 약화되다가 이후에는 해당 속도가 빨라질 전망.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하반기 경미한 경기침체 국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Oxford Economics)
- 전일 3월 소비자물가 발표로 높아졌던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가 이번 생산자물가 및 주간 고용지표 결과로 더욱 증가할 전망(FHN Financial).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5월 0.25%p 인상 및 6월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각각 66.5%, 64.2%)이 높은 상황
- 한편 백악관의 장피에르 대변인은 최근 공개되고 있는 지표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발표. 이는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계한 연준의 경제 전문가들과 상반된 의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세계경제는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을 극복할 필요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세계경제가 그 동안 여러 충격들을 극복했지만, 여전히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평가.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위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진단

■ ECB 관계자, 5월 통화정책회의 0.25%p 인상 의견이 많은 편

-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수의 통화위원들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5월 회의에서 0.25%p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 다만 일부 위원들은 4월 물가지표를 확인한 후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
- 독일 중앙은행의 나겔 총재는 역내 근원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통화정책 대응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 피력.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바슬레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강하기에 5월 ECB 회의에서 0.25%p 혹은 0.50%p 인상이 예상된다고 발언

■ 영란은행 총재, 금융안정 문제가 정책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금융안정 여부에 의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 중국 3월 수출, 양호한 대외 수요 등으로 예상치 상회. 향후 전망은 불확실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8% 증가하여 전월(-6.8%) 및 예상치(-7.0%) 대비 높은 수준. 3월 수입 역시 전년동월비 1.4% 감소하여 전월(-10.2%) 및 예상치(-5.0%) 상회. 무역수지는 882억달러 흑자를 기록
- 이번 결과는 여타 아시아 및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 이는 향후 제조업 생산 및 성장을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하반기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 시 높은 증가세 지속 여부는 어려울 소지

■ 일본은행 총재,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하회 가능성을 경계

- 우에다 총재는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회할 가능성보다 높다고 언급. 이번 발언은 시장 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월러 이사 강연,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3월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자국 및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America must expand its friendship group in the interests of trade)

- 작년 옐런 재무장관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중요성을 언급. 그러나 IMF의 경제학자들은 해외직접투자(FDI)가 '08년 이후 정치적으로 연계된 국가 위주로 재편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
-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면 글로벌 생산량 2% 감소 및 신흥국 시장에 대한 심각한 타격 등이 예상. 또한 자본의 재배치 등으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초래할 소지. 기업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관계로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 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세계화로의 회귀는 기대난. 이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공급망 다변화.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저효율 및 고물가를 초래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초저물가 시대의 재현은 기대난

■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험,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 Financial Times

(Commercial real estate is bruised but not broken)

- 연준이 금리인상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 정도를 제공하는 소형은행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는 관측이 부상. 특히 부동산 대출 위험이 큰 은행에 관심이 집중
-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체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Capital Economics). 또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25개 은행 중 12개월 이내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높은 은행은 1개에 불과
- 아울러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소형은행은 해당 지역 부동산 상황의 이해도가 높으며, 대출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 경제 여건 악화 시 일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편

■ 투자자의 경기침체 우려, 고수익채권 투자 회피를 초래 - Financial Times

(Investors shun riskier US corporate debt as recession fears loom)

- 3월 은행권 불안 등으로 투자자들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졌으며,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에 고수익채권 등 위험도가 높은 채권에 대한 투자가 위축
- 고수익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압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

■ 중국의 상반된 경제지표, 경기부양책 시행 여부 관련 논란을 증폭 - 블룸버그

(China's Contradictory Data Fuels Debate Over Need for Stimulus)

-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경기회복 관련 상이한 신호 발신. 일례로 코로나 제재 완화 이후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 증가로 서비스 소비가 확대. 반면 물가지표들은 둔화되어 소비부진 가능성을 시사. 또한 3월 수출의 예상 밖 증가는 제조업 생산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전에 발표된 제조업 PMI 등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
-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경기회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 또한 거론되고 있는 향후 통화 및 재정정책 경로 역시 상이. 정책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성장률 5%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연준의 재할인 창구를 통한 은행대출 감소, 은행권 불안 완화를 시사 - 블룸버그

(Fed's Emergency Loans to Banks Fall For Fourth Straight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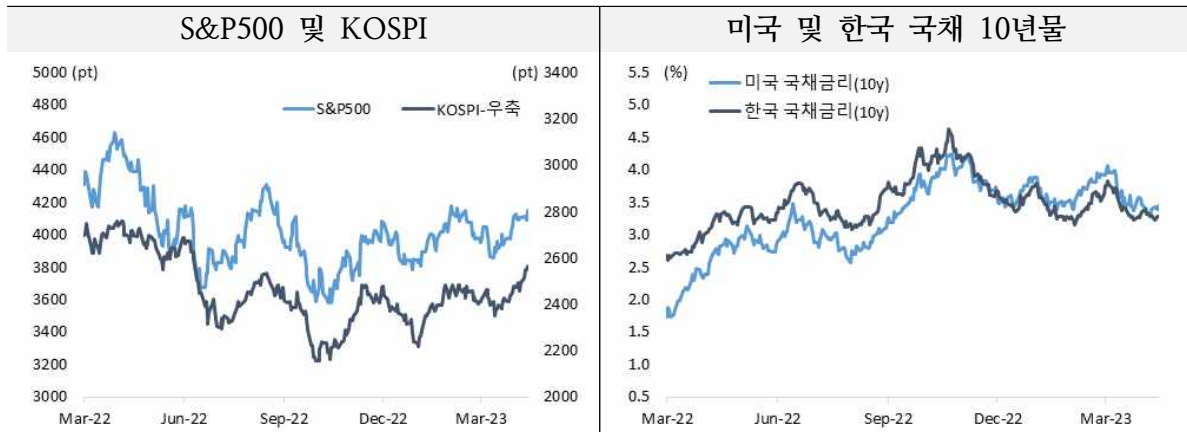
■ 미국 달러화 위상, 금융시장 개방도 등을 고려하면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What De-Dollarization? The Dollar Rules the World)

■ 부동산 대출시장, 은행권 비중 축소 및 그림자 금융 비중 확대될 소지 - 블룸버그

(Shadow Lenders to Bridge Real Estate Void Left by Banks, Bond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